

# 『黃帝內經』에 나오는 刺針 禁忌에 대한 考察

윤나리·김중환

東義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 A STUDY OF THE ACUPUNCTURE CONTRAINDICATION IN 『HWANGJENAKEYOUNG』(黃帝內經)

NA-RI YOON, JOONG-HAN KIM

Dept. of Chinese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Eui University

Acupuncture is the therapy that has been developed in the Orient traditionally. The therapy is what improve Kyoungrak(special nerve parts around the body which shows the signs of illness for acupuncture) function to cure a disease. Recently, Western medicine mostly depended on drugs and a surgical operation changes the course to the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and searches for the new solution. Like this, the Acupuncture therapy is took notice of both in the East and in the West. It has the merits such as the convenience of operation, fewer side effect comparatively, wise the extent of practical use. But it also has the adverse reactions such as fainting in the middle of acupuncture, the injury of the internal organs. For the prevention of these adverse reactions and the improvement of a curative effect, there are the cases that prohibit the acupuncture therapy or need careful attention. In this thesis, we considered the acupuncture contraindication in 『Hwangjenaekyoung』 from various angles such as the patient condition, the nature of a disease, the date and time, the weather, a region for acupuncture.

key words : Acupuncture, 『Hwangjenaekyoung』, contraindication.

### 1. 서론

동양의학의 경전인 『黃帝內經』은 『素問』과 『

靈樞』二 帙로 되어있다. 刺鍼療法은 藥物療法과 더불어 동양의학 치료의 兩大山脈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刺鍼療法은 內로는 五臟六腑와 이어져있고 外로는 四肢關節과 連絡되어 있다는 경락이론에 근거해서 針으로 주로 12經脈

의 經穴을 자극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법으로써 그 기술이 간편하면서도 효력이 뛰어나서 이제 국제적으로 널리 愛用되는 치료법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刺針 施術에 앞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면 所期의 目的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병을 더욱 加重시키거나 심지어는 死亡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黃帝內經』에서 제시한 禁刺의 여러 가지 요인 및 그 이유에 대하여 고찰 연구하였다.

## II. 본 론

### 1. 刺針 禁忌의 여러 가지 要因과 그 이유

『靈樞·官針』에서 “用鍼者，不知年之所加，氣之盛衰，虛實之所起，不可以爲工也”라 하였듯이 刺針하기에 앞서 의사는 天地 四時 氣候 변화와 患者의 氣血의 盛衰 등을 잘 알아야 함을 말했다.

『黃帝內經』에서 제시한 禁刺의 여러 가지 요인은 대략 다음과 같이 대별할 수 있었다.

#### 1-1. 天氣(氣候)와 日月

刺針時 그 날의 天氣와 月의 滿·空 그리고 日時를 살펴야 함은 『素問·八正神明論』, 『靈樞·五禁』에서 언급하였다.

『素問·八正神明論』: “凡刺之法，必候日月星辰四時八正之氣，氣定，乃刺之。是故天溫日明，則人血淖液，而衛氣浮，故血易瀉，氣易行，天寒日陰則人血凝泣，而衛氣沈。月始生，則血氣始精，衛氣始行；月郭滿，則血氣實，肌肉堅；月郭空，則肌肉減，經絡虛，衛氣去，形獨居。是以因天時而調血氣也。是以天寒無刺，天溫無疑，月生無瀉，月滿無補，月郭空無治，是謂得時而調之。因天之序，盛虛之時，移光定位，正立而待之。故

日月生而瀉，是謂臟虛，月滿而補，血氣揚溢，絡有留血，命曰重實；月郭空而治，是謂亂經。”

『靈樞·五禁』: “甲乙日自乘，無刺頭 無發矇于耳內。丙丁日自乘，無振埃于肩喉廉泉。戊己日自乘四季，無刺腹 去爪寫水。庚辛日自乘，無刺關節于股膝。壬癸日自乘，無刺足脛。是謂五禁。”

天地 四時 陰陽 氣候의 변화에 人身도 相應한다는 天人相應觀은 『內經』의 여러 편에서 언급하고 있다. 예를들면 『素問·生氣通天論』에서 “天地之間，六合之內，其氣，九州，九竅，五臟，十二節，皆通乎天氣。”<sup>1)</sup>라 하였고, 『素問·金匱真言論』에서도 “夫言人之陰陽，… 故以應天地陰陽也.”라 하였고,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는 “夫四時陰陽者，萬物之根本也。所以聖人春夏養陽，秋冬養陰，以從其根，故與萬物浮沈於生長之門”라 하였고, 『靈樞·歲露』에서도 “人與天地相參也，與日月相應也.”<sup>2)</sup>라 하여 四時 氣候 變化에 人身의 氣도 相應해서 변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素問·八正神明論』에서는 天人相應觀에 의하여 刺針時 반드시 四時 日月 八正之氣 등 기후를 살펴서 刺針의 好惡 與否를 정해야 함을 말했는데, 즉 天溫하고 日明하면 刺針함에 의심하지 말 것이며, 天寒하고 日陰하면 刺針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月의 滿·空 상태를 살펴 月이 始生할 때는 瀉하지 말고 月郭이 空하면 刺針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天溫 日明하면 人血의 활동도 활발해서 체표의 衛氣가 浮上하여 잘 流行하기 때문이며, 반면에 天寒 日陰하면 人血도 쉽게 凝滯되고 衛氣의 활동도 沈滯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月郭이 空할 때는 肌肉이 減하고 經絡도 虛해지기 때문에 刺針하면 經氣가 혼란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靈樞·五禁』에서는 十干에 따라 人체 禁

1) 金達鎬·李鍾馨, 注解補注黃帝內經素問, 醫聖堂, 2001, p.48.

2) 金達鎬, 注解補注黃帝內經靈樞, 醫聖堂, 2002, p.1390.

忌 部位를 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馬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天干이 人身에 應하는데, 頭는 甲乙日에 應하고, 肩喉은 丙丁日에 應하고, 戊己日은 手足四肢가 應하는데 辰戌丑未 四季와 合하는 것이요. 庚辛日은 股膝이 應하고, 壬癸日은 足脛이 應한다. 그러므로 대개 天干이 自乘하는 日에는 모두 그 곳을 刺針할 수 없다. 發矇과 振埃는 모두 刺法의 名目인데 『靈樞』의 刺節眞邪篇에 보인다.”<sup>3)</sup>

요컨대 氣候를 고려해서 刺針의 與否를 결정하는 본 편의 本旨는 慢性疾患을 두고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급히 調治하지 않으면 病勢가 惡化하거나 혹은 死亡할 수 있는 急性疾患을 두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만성질환일 경우 本 經典에서 말한 것과 같이 天寒 日陰한 날에는 生氣의 활동을 저해하는 寒濕한 氣가 많기 때문에 功效를 얻기 힘들뿐 만아니라 또한 邪氣가 針痕을 통해서 용이하게 침입해서 病症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月郭의 滿·空 변화에 따라 潮水의 海面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변화가 생기므로 月郭이 空한 그믐날은 生物들의 활동도 자연히 위축될 것이니 刺針하지 말라고 경계한 經文은 이치가 있다고 본다.

단지 天干의 日에 따라 人身의 일정 부위 禁刺는 陰陽五行理論에 입각한 학설이나, 실제 응용에 있어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볼 때, 有名無實한 理論에 불과하다고 보아진다.

## 1-2. 환자의 일시적 변동 상태

『黃帝內經素問·刺禁論』 및 『黃帝內經靈樞·終始

3) 馬元臺·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民國66年(1977).p.352. [馬註]“此詳言五禁之實也라. 天干 應於人身 頭爲甲乙, 肩喉爲丙丁, 戊己爲 手足四肢 合辰戌丑未之四季, 庚辛應股膝, 壬癸應足脛. 故 凡天干自乘之日 皆無刺之. 發矇振埃 俱刺法名目 見本經『刺節眞邪篇』”

篇』에 나오는데 경문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素問·刺禁論』: “無刺大醉, 令人氣亂. 無刺大怒, 令人氣逆. 無刺大勞人, 無刺新飽人, 無刺大飢人, 無刺大渴人, 無刺大驚人.”

『靈樞·終始篇』: “凡刺之禁, 新內勿刺, 新刺勿內. 已醉勿刺, 已刺勿醉. 新怒勿刺, 已刺勿怒. 新勞勿刺, 已刺勿勞. 已飽勿刺, 已刺勿飽. 已饑勿刺, 已刺勿饑. 已渴勿刺, 已刺勿渴. 大驚大恐, 必定其氣, 乃刺之. 乘車來者, 臥而休之, 如食頃乃刺之. 出行來者, 坐而休之, 如行十里頃乃刺之. 凡此十二禁者, 其脈亂 氣散逆, 其營衛經氣不次, 因而刺之, 則陽病入於陰, 陰病出爲陽, 則邪氣復生, 蠱工勿察, 是謂伐身, 形體淫泆, 乃消腦髓, 津液不化, 脫其五味, 是謂失氣也.”

이상은 환자의 病證의 輕重과 관계없이 환자가 육체적 활동이나 정신적 자극 飲食 男女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신체에 일시적인 변동이 초래하여 환자의 정상시 상태가 아니므로 이 때를 만나서 刺針해서는 안 됨을 경계한 말이다.

즉 『素問·刺禁論』에서는 大醉, 大怒, 大勞, 新飽, 大飢, 大渴, 大驚 등 7개의 상황을 제시했고 『靈樞·終始篇』에서는 그외에 新內(房勞), 大恐, 乘車來者, 出行來者 4개 상황을 추가 제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經文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 경우는 모두 脈亂하거나 氣逆하여 榮血衛氣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刺針하면 도리어 邪氣를 돕고 精氣를 잃게 되어 人身에 害가 된다고 하였다. 馬蒔는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內者 入房也, 新內則失其精矣. 酒者 熟穀之液 其氣標悍 已醉則氣亂矣. 肝主藏血, 怒則氣上 新怒則氣上逆而血妄行矣. 煩勞則神氣外張 精氣內絕矣. 『脈要精微論』曰 “飲食未進 經脈未盛 經脈調均 氣血未亂, 故乃可診有過之脈”, 是以已飽勿刺. 『平脈篇』曰 “穀入於胃 脈道乃行, 水入於經 其血乃成”, 是又已饑勿刺 已渴勿刺也. 驚傷神 恐傷精 故必定其氣 乃刺之 則存養其精

氣神矣。久坐傷肉 故乘車來者 臥而休之。久行傷筋 故出行來者 坐而休之。”<sup>4)</sup>

### 1-3. 환자의 病證

『素問·離合眞邪論』에서 “刺不知三部九候病脈之處，雖有大過且至，工不能禁也。誅罰無過，命曰：大惑，反亂大經，眞不可復，用實爲虛，以邪爲眞，用鍼無義，反爲氣賊，奪人正氣，以從爲逆，榮衛散亂，眞氣已失，邪獨內著，絕人長命，予人夭殃。”라 하여 의사는 刺針하기 이전에 먼저 진찰을 통해서 病證의 輕重 虛實 등에 대한 정확하게 안 연후에, 刺針의 與否를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라면 함부로 刺針하면 도리어 精氣를 해쳐 絶命케 한다고 하였다.

『內經』에서 병증에 따라 刺針을 禁하는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 (1) 久病으로 肌肉이 脫했거나 氣血이 俱虛한 상태

『素問·評熱病論』『素問·刺瘡』『素問·奇病論』『靈樞·邪氣藏府病形』『靈樞·根結』『靈樞·本神』에 나오는데 경문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素問·評熱病論』: “帝曰 有病腎風者，面胗瘧然壅，害于言，可刺不? 岐伯曰 虛不當刺，不當刺而刺，後五日其氣必至。”

『素問·刺瘡』: “瘡脈緩大虛，便宜用藥，不宜用鍼。”

『素問·奇病論』: “所謂無損不足者，身羸瘦，無用鑿石也。… 帝曰：病脇下滿氣逆，二三歲不已，是爲何病。岐伯曰：病名曰息積，此不妨於食，不可灸刺，積爲導引服藥，藥不能獨治也。”

『靈樞·邪氣藏府病形』: “諸小者，陰陽形氣俱不足，勿取以鍼，而調以甘藥也。”

『靈樞·根結』: “形氣不足，病氣不足，此陰陽氣俱不足也，不可刺之，刺之則重不足，重不足則陽

俱竭，血氣皆盡，五臟空虛，根骨髓枯，老者絶滅，壯者不復矣。”

『靈樞·本神』: “恐懼而不解，則傷精，精傷則骨痠痿厥，精時自下。是故五臟，主藏精者也，不可傷，傷則失守而陰虛，陰虛則無氣，無氣則死矣。是故用鍼者，察觀病人之態，以知神魂魄之存亡，得失之意，五者以傷，鍼不可以治之也。”

『素問·評熱病論』에서 面胗 言語不利 한 腎風 病의 虛證, 『素問·奇病論』에서 수년 동안 氣逆 脇下滿한 증상이 낫지 않아 형성된 息積, 그리고 身이 마르고 瘦瘠한(形肉已脫) 경우, 『素問·刺瘡』에서는 瘡에 脈象이 緩하면서 크게 虛한 경우, 『靈樞·本神』에서는 과도한 惝으로 인해 五藏의 陰精이 虛해진 경우 등 모두 病이 오래 동안 낫지 않아 精氣가 虛한 상태이므로 刺針을 禁한다고 하였다.

經脈은 원래 “流行不止，環周不休”하는 것이지만 寒邪의 침입을 받거나 혹은 정신적 자극을 받으면 血氣 울체되어 소통이 不利해진다. 刺針療法은 鬱滯된 氣血을 잘 통하게 하는 데 있지만, 『靈樞·血絡論』에서 “脈氣盛而血虛者，刺之則脫氣，”한다 하였듯이 血虛한 자에게 刺針하면 오히려 脫氣시켜서 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久病해서 瘦瘠하여 形肉이 已脫할 정도에 이르면 이는 五藏의 精氣가 극도로 虛해진 경우이니, 이 때에 刺針을 하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素問·湯液醪醴論』에서 이른바 “形弊血盡하여 功不立한 理由는 神이 不使하기 때문이다”한 것이다. 이를 알지 못하고 刺針하면 더욱 精氣를 奪해서 병은 挽回할 수 없는데 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諸小者，陰陽形氣俱不足，勿取以鍼，而調以甘藥也。”라 하여 陰陽俱虛하여 形氣不足한 者는 刺針하지 말고 甘藥으로 調治하라고 한 것도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 刺針을 警戒한 經言이라 할 수 있다.

(2) 病勢가 격렬하게 進行되거나 혹은 一時

4) 馬元臺·張隱庵, 前揭書.p.72

의 損傷이 심한 상태

『素問·瘧論』 『靈樞·逆順』 『靈樞·衛氣失常』 『靈樞·五禁』에 나오는데 經文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素問·瘧論』: “經言‘無刺熇熇之熱, 無刺渾渾之脈, 無刺漉漉之汗’, 故爲其病逆未可刺也.”

『靈樞·逆順』: “刺法曰: 無刺熇熇之熱, 無刺漉漉之汗, 無刺渾渾之脈, 無刺病與脈相逆者.”

『靈樞·衛氣失常』: “診視其脈大而弦急, 及絕不至者, 及腹皮急甚者, 不可刺也.”

『靈樞·五禁』: “形肉已奪 是一奪也, 大奪血之後 是二奪也, 大汗出之後 是三奪也, 大泄之後 是四奪也, 新產及大血之後 是五奪也. 此皆不可寫.”

이상 『素問·瘧論』 혹은 『靈樞·逆順』에서 “身熱이 땀땀 끊을 경우, 혹은 땀이 줄줄 흐를 경우, 혹은 脈이 크게 뛰면서 紊亂한 경우에 刺針하지 말라” 는 것은 氣가 逆하여 病症이 아직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靈樞·五禁』에서 이른바 形肉已奪을 제외하고 大奪血之後 ‘大汗出之後’ ‘大泄之後’ ‘新產之後’ 등은 모두 일시적으로 人身의 氣血이 크게 손상을 입어 精氣가 극도로 衰弱한 상태이므로 刺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病勢가 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자침하지 말라는 경우는 『靈樞·逆順』에서 이른바 “兵法曰: 無迎逢逢之氣, 無擊堂堂之陣... 方其盛也, 勿敢毀傷, 刺其已衰, 事必大昌” 이라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병세가 극렬할 때는 반드시 邪氣가 衰退하기를 기다려서 刺針해야 所期의 目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3) 死證

『靈樞·熱病』, 『靈樞·病傳』, 『靈樞·玉板』, 『靈樞·五禁』 등 편에 나오는데 經文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靈樞·熱病』: “熱病不可刺者有九, 一曰, 汗不

出, 大顛發赤噦者, 死. 二曰, 泄而服滿甚者, 死. 三曰, 目不明, 熱不已者, 死. 四曰, 老人嬰兒, 熱而腹滿者, 死. 五曰, 汗不出, 嘔下血者, 死. 六曰, 舌本爛, 熱不已者, 死. 七曰, 欬而衄汗不出, 出不至足者, 死. 八曰, 髓熱者, 死. 九曰, 熱而痙者, 死. 腰折癰癧, 齒噤齧也. 凡此九者, 不可刺也.”

『靈樞·病傳』: “諸病以次相傳, 如是者, 皆有死期, 不可刺也.”

『靈樞·玉板』: “黃帝曰 多害者其不可全乎. 岐伯曰: 其在逆順焉. 黃帝曰: 願聞逆順. 岐伯曰: 以爲傷者, 其白眼青, 黑眼小, 是一逆也. 內藥而嘔者, 是二逆也. 腹痛渴甚, 是三逆也. 肩項中不便, 是四逆也. 音嘶色脫, 是五逆也. 除此五者, 爲順矣.”

『靈樞·玉板』: “黃帝曰 諸病皆有逆順, 可得聞乎. 岐伯曰 腹脹身熱脈大, 是一逆也. 腹鳴而滿, 四肢清泄, 其脈大, 是二逆也. 衄而不止, 脈大, 是三逆也. 欬且溲血脫形, 其脈小勁, 是四逆也. 欬脫形, 身熱, 脈小以疾, 是謂五逆也. 如是者, 不過十五日而死矣.”

『靈樞·玉板』: “其腹大脹, 四末清, 脫形, 泄甚, 是一逆也. 腹脹便血, 其脈大, 時絕, 是二逆也. 欬溲血, 形肉脫, 脈搏, 是三逆也. 嘔血, 胸滿引背, 脈小而疾, 是四逆也. 欬嘔, 腹脹且癢泄, 其脈絕, 是五逆也. 如是者, 不及一時而死矣. 工不察此者而刺之, 是謂逆治.”

『靈樞·五禁』: “熱病脈靜 汗已出 脈盛躁 是一逆也, 病泄脈洪大 是二逆也, 著痺不移 髓肉破身熱 脈偏絕 是三逆也, 淫而奪形 身熱 色天然白 及後下血 衄 血衄篤重 是謂四逆也, 寒熱奪形 脈堅搏 是謂五逆也.”

이상 『靈樞·熱病』에서 熱病에 刺針이 不可한 9가지 경우에 대한 이유는 馬蒔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一曰 熱病汗不得出 大顛骨之上 發而爲赤 胃邪盛也, 穀氣與邪氣相爭 發而爲噦 胃氣虛也, 此其所以死也. 其二曰 熱病下則爲泄 而腹尤甚

滿 不以泄減 脾氣衰也, 此其所以死也. 其三曰 目以熱而不明 熱尤甚而巳 肝氣衰也, 此其所以死也. 其四曰 凡老人嬰兒 熱病而腹滿者 脾邪盛也, 此其所以死也. 其五曰 熱病而汗既不出 心氣衰也, 血或嘔或下 則邪尤盛也, 此其所以死也. 其六曰 舌本已爛 熱猶不已 心邪盛也, 此其所以死也. 其七曰 熱病欬而且衄 肺邪盛也, 其熱已極 汗猶不出 心氣衰也, 縱汗出而不至足 此即上節陽脈之衰, 此其所以至於死也. 其八曰 熱病而髓甚熱 熱則髓枯 腎氣衰也, 此其所以至於死也. 其九曰 熱病發而為瘰 蓋熱極生風而為強病也, 此其所以至於死也. 凡此九者, 其脈必折, 其病發為瘰癧, 其齒必噤而齧, 皆死徵已見, 刺之無益也”<sup>5)</sup>

『靈樞·熱病』에 나오는 9가지 刺針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死證에 속하며, 그 이유는 馬蒔의 註釋에 의하면 모두 五臟의 氣가 消盡되었거나 아니면 五臟에 邪氣가 盛한 病證으로 모두 刺針하더라도 도움이 없다고 하였다.

『靈樞·玉板』에 나오는 세 종류의 五逆證과 『靈樞·五禁』의 하나의 五逆證은 대체로 五臟의 氣가 衰竭하거나 혹은 病證과 脈象이 相反되는 死證이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施術에 앞서 환자 病證에 대한 生死與否와 豫後善惡을 결정한 후 만약 환자가 死證에 처해 있으면 무모한 치료를 삼가고 환자가 善終할 수 있도록 도와야 마땅할 것이다.

#### 1-4. 刺針을 禁해야 하는 신체 부위

『素問·刺禁論』, 『素問·診要經終論』에 나오는데 經文과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素問·刺禁論』: “刺中心 一日死 其動爲噫, 刺中肝 五日死 其動爲語, 刺中腎 六日死 其動爲嘔, 刺中肺 三日死 其動爲欬, 刺中脾 十日死 其動爲吞, 刺中膽 一日半死 其動爲嘔”

『素問·刺禁論』: “刺附上 中大脈 血出不止死, 刺面 中溜脈 不幸爲盲, 刺頭 中腦戶 入腦立死, 刺舌下 中脈大過 血出不止爲瘡, 刺足下布絡 中脈 血不出爲腫, 刺郄中大脈 令人仆 脫色, 刺氣街 中脈 血不出爲腫鼠僕, 刺脊間中髓爲偃, 刺乳上 中乳房 爲腫 根蝕, 刺缺盆 中內陷 氣泄 令人喘 欬逆, 刺手魚腹 內陷 爲腫.”

『素問·刺禁論』: “刺陰股 中大脈 血出不止死, 刺客主人內陷 中脈 爲內漏 爲聾. 刺膝髓出液爲跛. 刺臂太陰脈 出血多 立死, 刺足少陰脈 重虛出血 爲舌難以言, 刺膺中陷 中肺 爲喘 欬 仰息, 刺肘中內陷 氣歸之 爲不屈伸, 刺飲股下三寸內陷 令人遺溺, 刺腋下 脇間內陷 令人欬, 刺少腹 中膀胱 溺出 令人少腹滿, 刺臍腸內陷 爲腫, 刺匡上陷骨 中脈 爲漏 爲盲, 刺關節中 液出 不得屈伸.”

『素問·診要經終論』: “凡刺胸腹者, 必避五臟. 中心者, 環死; 刺中肝, 五日死; 中脾者, 五日死; 中腎者, 七日死; 中肺者, 五日死; 中膈者, 皆爲傷中, 其病雖愈, 不過一歲必死. 刺胸腹者, 必以布縵著之, 乃從單布上刺. 刺鍼必肅, 刺腫搖鍼, 經刺勿搖, 此刺之道也.”

이상 『素問·刺禁論』과 『素問·診要經終論』에서는 五臟에 刺針하면 死하게되니 반드시 피해야 함을 말했고, 나아가 五臟 이외에 眼, 耳, 舌 등 五官이 있는 頭面部와 腦, 脊髓, 乳房 등 주요 기관, 屈伸 운동을 맡은 肘膝 關節 부위 및 臂內側 陰股 鼠蹊部 등 큰 動脈이 흐르고 있는 부위는 刺針함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오장에 刺針을 禁하는 이유는 『靈樞·本藏篇』에서 “五臟者, 所以藏精神血氣魂魄者也”라 하였고, 『素問·脈要精微論』에서 “五臟者, 中之守也.” “五臟者, 身之強也.”라 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治五臟者, 半死半生也.”라 하였으니 五臟은 人身의 근본이 되는 장기이므로 五臟에 刺針하여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五臟 이외 기타 주요한 기관이 있는 穴位는

5) 馬元臺·張隱庵, 前揭書, p.207.

자칫 경솔히 刺針하면 體內出血 근육 신경조직 손상 등으로 주요 기관의 심각한 機能 障礙를 초래케 하거나 혹은 死亡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鍼灸文獻에 禁鍼穴, 禁灸穴의 기록이 있는데 임상에서 반드시 구애받을 필요는 없으나 刺針 深度와 방향 등 手法法과 刺戟量을 조절하여 활용토록 해야 하며 충분한 解剖學的 知識을 갖추고 환자의 상태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III. 결 론

『黃帝內經』에서 제시한 刺鍼 禁忌의 여러 요인과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대략 다음과 같았다.

1. 天氣의 寒溫, 月의 滿·空을 살펴서 天寒 日陰 月空할 때이다. 그 이유는 天寒 日陰할 때는 人身 血氣의 활동도 沈滯되기 때문이요. 月이 空할 때는 經氣 활동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2. 患者 體內的 氣가 일시적인 變動이 발생했을 때이다. 즉 久坐 久行 등 육체적 활동 卽後, 怒·驚·恐 등 지나친 정신적 충격, 飲酒 男女行房 前後, 飽食 大饑 大渴 大勞할 경우는 모두 크든 작든 脈亂 氣逆한 상태이므로 氣가 安定되기를 기다린 후에 刺針해야 한다.
3. 久病으로 形肉이 已脫했거나 脈이 大虛한 者이다. 이는 모두 五臟의 陰精이 부족하기 때문에 刺針하면 오히려 脫氣하여 병을 加重시키기 때문이다.
4. 病勢가 격렬하게 進行하거나 혹은 氣血이 일시적으로 심한 손상을 받았을 때이다. 즉

發熱이 극심하거나, 땀이 지나치게 흐르고 있거나, 맥이 크고 혼란스럽게 떨 경우는 兵法에 이르길“堂堂한 陣營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과 같이 極盛한 邪勢는 피해야 한다. 出血過多 大泄 新產 卽後 등은 일시적으로 氣血이 크게 손상을 받아 精氣가 극도로 虛해졌기 때문이다.

5. 死證일 경우이다. 즉 熱病의 9가지 死證, 五逆證 등으로 모두 五臟의 精氣가 衰竭했거나 五臟에 邪氣가 極盛하거나 혹은 病證과 脈象이 相反되는 死不治病이다.
6. 人身의 주요 臟器이다. 人身의 根本이 되는 장기인 五臟은 반드시 피해야한다. 그 외 腦 脊髓 乳中 眼 耳 舌 등 주요 기관이 있는 부위, 大動脈이 흐르는 臂 內側이나 陰股, 屈伸에 관계하는 肘膝 關節 주변 등에 刺針할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妄刺하면 組織損傷으로 인한 주요 기관의 機能障礙, 혹은 出血 過多 등으로 인해서 死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1. 金達鎬·李鍾馨, 注解補注黃帝內經素問, 醫聖堂, 2001
2. 金達鎬, 注解補注黃帝內經靈樞, 醫聖堂, 2002,
3. 馬元臺·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民國66年(1977)